

체리밸리 마케팅 부문 브랜드 상 수상



좌측부터 Merston's Peters 사의 마틴, 체리밸리 사의 레이첼과 브라이언, Black Farmer Farms의 윌프레드 氏



영국에서 가장 규모있는 오리 생산업체 체리밸리는 올해의 양돈/가금 마케팅 대상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체리밸리는 올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브랜드 이미지)상 부분에서 '체리밸리' 브랜드와 더불어 작년에 론칭한 요식업 브랜드인 'Farm Fresh(신선한 농장의

Pig Marketing

FarmBusiness

맛)를 인정받아 상을 시상하였고, 혁신상 부분에서 오리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베란다 시스템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5월 14일 런던에 위치한 헤이마켓 호텔에서 열린 양돈/가금 마케팅 대상 시상식은 Pig and Poultry Marketing과 Farm Business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42커뮤니케이션이 후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브랜드 이미지)상은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목표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등의 브랜드 대중화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Stellamune Once 후원의 혁신상은 요식산업에 기여를 하거나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에게 표창하는 것으로 체리밸리는 베란다는 이용한 복지 시스템으로 이 상을 수여했다.

체리밸리는 베란다는 통해 오리들이 햇볕을 쬐 수 있게 하면서 오리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설치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고객들은 최고의 복지 수준에서 사육된 오리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하였다.

체리밸리의 영업 및 마케팅 부서 이사인 Eric씨는 "우리 고객들은 우리 사업의 핵심이며, 우리는 고객들의 니즈(needs) 그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최상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개발한 우리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베란다 시스템이 인정을 받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나는 체리밸리 브랜드를 믿고 있으며, 최근 Farm Fresh가 좋은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이 상들이 이를 반영한 것 같아 정말 좋다"고 수상 소감을 전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체리밸리는 '건강과 위생' 분야에도 후보로 선정되었다.